

G20 SEOUL SUMMIT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국민과 함께 세계로, 세계와 함께 미래로
함께 이룬 성공개최, 세계속의 선진한국

일 시 : 2010. 11. 11(목) ~ 11. 12(금)
장 소 : 대한민국(서울)

G20 정상회의란?

서울 G20정상회의에서는 지구촌 경제현안논의의 장으로 거시경제정책 공조,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편 및 개발 이슈와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주요의제로 다루게 됩니다.

G20 참여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터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EU 의장국

G20 정상회의는 유엔(UN)가입국 192개 나라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유지(有志)력의 20개 나라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이러한 모임에 우리나라가 좌장(座長)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입니다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주도적인 Global Leadership 발휘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유관기관과 회의 진행 및 행사 준비 만전

국민적 참여와 협조를 통한 선진 시민의식 제고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한단계 Upgrade하는 기회로 활용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 계기

일류 선진국 진입



인천광역시 서구청



G20에티켓

함께해야 성공하는 서울G20 정상회의. 꼭 지켜야 할 국민 에티켓을 소개합니다.

친절한 당신이 바로 G20 외교사절입니다

Etiquette 1

외국인을 만나면 겁먹지 말고 'Hello' 하며 웃어보세요.

웃는 얼굴로 하는 인사는 모르는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라고 해도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에게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고 얼굴에 웃음을 띠는 것은 외국에서는 당연한 에티켓입니다. 이제부터 외국인을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해보세요.

Etiquette 2

지하철에서는 통화도 소곤소곤, 음악도 작게!

공공장소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는 조금만 신경쓰면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할 때에는 작은 목소리로, MP3의 볼륨도 옆사람이 들리지 않게 낮추어 공공장소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Etiquette 3

내리는 사람 먼저, 줄서기는 기본! 지키기

말하지 않아도 지켜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는 '내리는 사람이 먼저' 라는 건 모두 알고 있는 상식이죠. 질서 없는 우왕좌왕 대신 줄을 잘 서고, 먼저 탄 사람이 내릴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타인의 배려, 내가 먼저 해주세요.

Etiquette 4

지나가다 부딪쳤을 땐 "미안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어가 '빨리 빨리' 라고 합니다. 빨리 움직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 뿐만 아니라 에티켓에서도 이러한 실수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길에서 어깨를 부딪쳤을 때, 잠깐 멈춰서 미안하다고 사과해보세요. 작은 배려가 큰 감동을 가져다줍니다.

Etiquette 5

쓰레기는 휴지통에! 깨끗한 길거리를 만들기

길거리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면? 우리집 안에, 내 방에 쓰레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불편한 일 이죠. 남의 길거리가 아닌, 우리의 길거리라고 생각하고 먼저 실천해보아요. '쓰레기는 휴지 통에', 깨끗한 길거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

Etiquette 6

인터넷 약물은 그만! 안 보일수록 더욱 예의가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인터넷에 약물을 다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즐겨 찾는 곳이니 만큼 더욱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건 당연하겠죠? 선풍도 달고, 예의를 지키는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 갑시다.

Etiquette 7

건전한 음주문화! 건전한 습관으로 만들기

역시 술 권하기, 잔 돌리기, 폭음, 음주 운전 등 한국의 술 문화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보통 저녁 시간에 도수가 낮은 맥주나 와인을 가볍게 즐기며 환담을 나눈다고 해요. 술이 '목적'이 아닌, 하나의 건전한 '수단'으로 이용되길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Etiquette 8

서로를 배려하는 교통질서 지키기

교통 사고율 전 세계 TOP이라는 기록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항상 마음이 급하고 남보다 내가 먼저 가야한다는 생각이 교통 질서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남을 조금만 배려하기 시작한다면 '끼어들기', '꼬리물기', '난폭운전' 을 막을 수 있습니다.